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올해 3년차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전북 고용위기 해소 마중물 역할 '톡톡'

지난 2년간 3839개 일자리 창출·888개 위기기업 지원 도, 올해부터 3년동안 6000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키로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전라북도 고용 위기 극복 특별 프로젝트인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 패키지)'이 전북 내 고용위기를 해소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선패 사업은 지난 2020년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째 추진 중인 5년 연속 사업(2020~2024)으로, 군산 발 자동차산업의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가 인근 지역(익산 김제 완주)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현안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내 핵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 농식품·신기술산업에서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위기산업에서 방출된 위기근로자를 재배치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년간 3,83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888개의 위기기업을 지원하여 코로나9라는 악재가 더해진 악조건 속에서도 도내 고용위기를 해소하는데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자동차산업 수혜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및 시제품 개발에 성공해 매출 증가를 달성했으며, 매출 증가는 전후방 산업에도 긍정적 상승효과를 가져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했다.

농식품·신기술 산업의 경우, 수혜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위기 근로자를 해당 분야로 흡수하는 등 고

용안전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3년차로 '성숙기에 진입한 만큼 '단기적 성과 창출'을 넘어 중장기 산업육성 및 발전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1·2차년도 사업을 돌아보고, '지역 노동시장 현황 분석', '전북 지역경제 영향평가', '산업·경제·고용정책 현황분석' 등 도내 환경변화를 진단해 올해 사업을 개편했으며, 지난 8일 고용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개의 프로젝트, 8개의 세부사업, 15개의 단위사업으로 재구성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6,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먼저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인 위기산업의 범위를 재정의하여, 위기기업과 위기근로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위기산업을 자동차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위기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했다.

도내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연계산업'이 위기산업으로 포함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익산·김제·완주에 위치한 '고용안전선제대응센터(이하, 고용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사무실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용센터를 고용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중심'으로 집중 운영되도록 전환했다. /유호성 기자

현장에서 위기기업과 근로자를 발굴하고, 취업희망자와 직접 대면해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생생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면접비 지원, ▲정장대여비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직장 애로 해소의 날, ▲취업캠프, ▲일자리 한파당,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구직자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위기근로자 발굴부터 교육훈련,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고용창출 전 과정에서 패키지 사업 내 수행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전라북도 원스톱 고용연계 패키지'를 신설했다.

단기 일자리 창출을 넘어 교육훈련도 연계해 근로자가 해당 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선패 사업은 지난 2020년 송하진 도지사의 강한 의지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22개 권소사업 지역 중 '전국 1위'로 선정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고용 특별 프로젝트이다.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을 고도화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창업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신'일지를 창출하고, 고용안전 거버넌스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5년간 안정적·'신'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김영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는 그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라며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을 이어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산업과 농식품·신기술 산업을 성장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11일 서울 삼성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오른쪽)가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왼쪽)을 만나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과 주요 현안을 새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전북 공약 반영, 지방시대로 가는 길”

송하진 도지사, 김병준 인수위 지역특위 위원장과 면담 당선인 약속한 새만금 메가시티 등 7대 공약 반영 요청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과 주요 현안을 새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선인 전북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주요 핵심 공약 과제를 아래와 같이 건의했다.

먼저 송 지사는 새만금이 하이퍼 튜브 실증을 위한 대규모 부지(경지, 직선구간)를 갖춘 최적지이며,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연계 가능한 핵심인프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 훈련원·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과 관련,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전문체육 훈련 시설을 중부 이남지역에 건립하고, 무주 태권도원과 연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를 양성할 사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가적 신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에 추가가 참복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전북의 조선산업의 회복을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의 예타 대상 사업 또는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예타 면제 등 국가정책적 결정을 통해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동시 건설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윽고,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공공기관 추가이전 조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날 송 지사는 새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모토에 맞춰 전북지역의 미래 비전과 전략 구상을 위한 핵심 현안 과제들이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과제에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전북에서 건의한 공약과 현안들에 대해 공감하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과 지역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새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전화 회화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핵심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 금위원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등 공약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유호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